

한방병원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손미주·한재경·김윤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Abstract

A Clinical Stud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Inpatients Admitted to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Son Mi Ju, Han Jae Kyung, Kim Yun Hee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linical featur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atients admitted to the oriental medical hospital.

Methods

The study composed of 1284 inpatients aging from 0 to 19 who had been admitted in 4 oriental medical hospitals located in Daejeon and Chungcheong.

Results

1. In this study, 688 boys and 715 girls were examined, giving the ratio of 0.96:1. Average age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11.5, and the number of inpatients has increased as getting older.
2. The percent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patients has increased every year : 9.1% in 2005, 13.0% in 2006, 13.8% in 2007, 16.3% in 2008, 18.0% in 2009, with 22.2% in 2010, 7.8% until May 2011. The month scored the highest admittance was December and the lowest was March.
3. In systemic division, the musculoskeletal system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neuromuscular system, respiratory system, digestive system, psychological system, and nervous system.
4. Most patients have admitted in acupuncture & moxibustion department, followed by oriental pediatrics,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5. In Pediatrics, 196 boys and 166 girls were admitted. The age distribution showed that 6.4% were in infancy, 43.6% in preschool period, 30.1% in prepuberal period, 18.8% in early puberty and 1.1% in late puberty. The percentage of pediatrics inpatients has increased every year.

Conclusions

More data of patients should be collated for further study. More detailed study with different kinds of diseases are expected based on this study.

Key words : Children and Adolescents, Inpatient, Oriental medical hospital

I. 緒 論

최근 국민의료 수요의 변화와 대체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더불어 한방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¹⁾,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변 및 한방 의료기관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는 한방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²⁾.

한방소아과학 영역에 있어서도 성장, 비만, 알리지 질환이 점점 흔해지고 있고, 감염병과 영양실조 등은 감소하는 등 사회의 변화와 의학에 발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³⁾.

이러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방소아과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대책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외래환자의 주소증⁴⁻¹⁰⁾에 관한 연구였으며, 입원환자에 대한 연구¹¹⁾ 또한 연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의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저자는 대전, 충청지역 소재 4 곳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주소증을 분석하여 현재 한의학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입원 질환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방소아과학이 나아갈 방향의 단서를 찾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대전, 충청지역 4곳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19세 이하의 환자 1336명 중 2일 이상 입원한 환자 1284명, 총 입원건수 14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9세 이하의 기준은 WHO의 규정을 참고하였다¹²⁾.

2. 연구방법

입원환자의 병력기록지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분포, 연도별, 월별 분포, 연령별 평균 입원치료기간 비교 및 입원 시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를 시행하였고, 계통별 분류에 따른 다빈도 질환을 조사하였으며, 진료과별 입원 환자의 평균연령, 입원치료기간 분포 및 과별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를 시행하였다. 또한 입원당일 퇴원한 환자 52명, 총 입원건수 53건에 대한 퇴원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소증의 분류는 한방소아과학 교과서¹²⁾ 및 홍창의 소아과학³⁾의 계통적 분류를 따랐으며, 연령은 소아과 시기 분류에 따라 신생아기(0~4주), 영아기(1개월~12개월), 유아기(1~5세), 학동기(6~10세), 초기사춘기(11~15세), 후기사춘기(16~19세)로 분류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12.0 program 및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結 果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성비는 남아 688명, 여아 715명으로 여아가 많았으며, 남녀비는 0.96:1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신생아가 1명(0.1%), 영아가 40명(2.9%), 유아기가 265명(18.9%), 학동기가 259명(18.5%), 초기사춘기가 344명(24.5%), 후기사춘기가 494명(35.2%)이었다. 연령에 따른 남녀비는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큰 반면, 사춘기에서는 여아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Group

	Male	Female	Ratio*	Total	Percent(%)
Neonatal period	0	1	0	1	0.1
Infancy	24	16	1.5	40	2.9
Preschool period	145	120	1.21	265	18.9
Prepuberal period	132	127	1.04	259	18.5
Puberty(early)	158	186	0.85	344	24.5
Puberty(late)	229	265	0.86	494	35.2
Total	688	715	0.96	1403	100

* Ratio : Male/Female

2. 연도별 분포

입원환자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28명(9.1%), 2006년에는 182명(13.0%), 2007년에는 193명(13.8%), 2008년에는 228명(16.3%), 2009년에는 252명(18.0%), 2010년에는 311명(22.2%), 2011년 5월 말까지 109명(7.8%)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2005~2007년 사이에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008~2011년까지는 여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Figure 1).

3. 월별 분포

본 연구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6년 5개월동안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1403건 전체 자료를 분석할 경우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가 더 추가된다는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월별 분포 조사에서는 2011년도 입원환자를 제외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294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월별 분포

입원환자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12월에 132명

(10.2%) 입원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월에는 72명(5.6%) 입원하여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4월, 7~10월에는 남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1~2월, 5~6월에는 여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Figure 2).

2) 연령에 따른 월별 분포

신생아기 및 영아기의 월별 분포는 환자수가 많지 않아 유의한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유아기에는 9월과 11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2~3월과 7~8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학동기에는 8월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초기사춘기에는 7~8월, 12월에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 6, 9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후기사춘기에는 12~1월, 7~8월에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4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Table 4, Figure 3).

4. 연령별 평균 입원치료기간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치료기간은 10.1(±10.4)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아기에는 3.0

Table 2. Distribu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Year

Year	Gender		Total	Percent(%)
	Male	Female		
2005	69	59	128	9.1%
2006	100	82	182	13.0%
2007	102	91	193	13.8%
2008	105	123	228	16.3%
2009	118	134	252	18.0%
2010	146	165	311	22.2%
2011	48	61	109	7.8%
Total	688	715	1,4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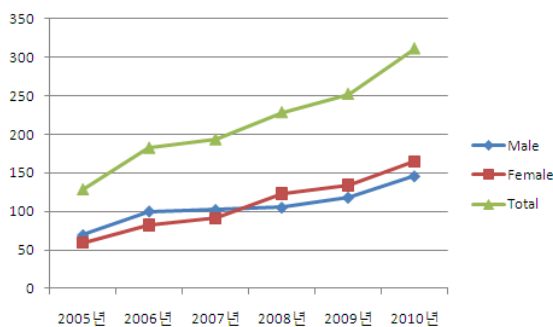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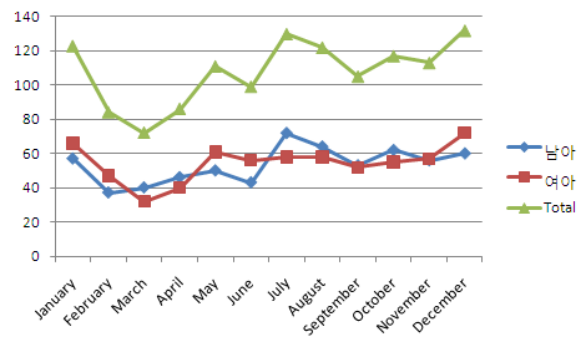


Figure 2. The number of inpatients according to gender and month

Table 3.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Gender and Month

	Male	Female	Total	Percent(%)
January	57	66	123	9.5
February	37	47	84	6.5
March	40	32	72	5.6
April	46	40	86	6.6
May	50	61	111	8.6
June	43	56	99	7.7
July	72	58	130	10.0
August	64	58	122	9.4
September	53	52	105	8.1
October	62	55	117	9.0
November	56	57	113	8.7
December	60	72	132	10.2
	640	654	12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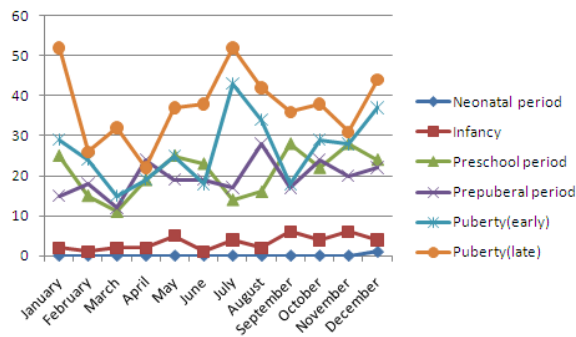


Figure 3. The number of inpatients according to age group and 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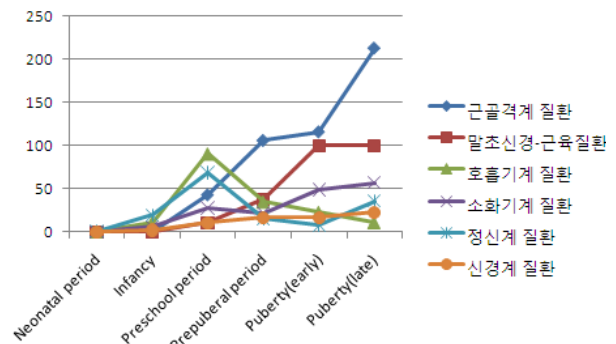


Figure 4. The number of inpatients according to age group of the top 6 systemic divisions

Table 4.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Age Group and Month

	Neonatal period	Infancy	Preschool period	Prepubertal period	Puberty (early)	Puberty (late)	Total	Percent(%)
January	0	2	25	15	29	52	123	9.5
February	0	1	15	18	24	26	84	6.5
March	0	2	11	12	15	32	72	5.6
April	0	2	19	24	19	22	86	6.6
May	0	5	25	19	25	37	111	8.6
June	0	1	23	19	18	38	99	7.7
July	0	4	14	17	43	52	130	10.0
August	0	2	16	28	34	42	122	9.4
September	0	6	28	17	18	36	105	8.1
October	0	4	22	24	29	38	117	9.0
November	0	6	28	20	28	31	113	8.7
December	1	4	24	22	37	44	132	10.2
	1	39	250	235	319	450	1294	100.0

(±0.0)일, 영아기에는 5.4(±3.4)일, 유아기에는 6.8(±7.8)일, 학동기에는 9.4(±9.3)일, 초기사춘기에는 11.4(±10.0)일, 후기사춘기에는 11.7(±12.0)일로 연령에 따라 입원치료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5).

5. 주소증의 계통별 분류

계통별로 주소증을 분류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478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말초신경-근육 질환(249건, 17.7%), 호흡기계 질환(171건, 12.2%), 소화기계 질환(162건, 11.5%), 정신계 질환(150

Table 5. Comparison Days of Hospital Treatment between Age Groups

		Days of Hospital Treatment		
		N	Mean	SD
Age Group	Neonatal period	1	3.0	0.0
	Infancy	40	5.4	3.4
	Preschool period	265	6.8	7.8
	Prepuberal period	259	9.4	9.3
	Puberty(early)	344	11.4	10.0
	Puberty(late)	494	11.7	12.0
	Total	1403	10.1	10.4

Table 6.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Systemic Division and Gender

	Gender		Total	Percent(%)
	Male	Female		
근골격계 질환	225	256	478	34.1
말초신경-근육 질환	134	115	249	17.7
호흡기계 질환	92	79	171	12.2
소화기계 질환	85	77	162	11.5
정신계 질환	72	78	150	10.7
신경계 질환	39	31	70	5.0
종양 질환	6	14	20	1.4
감염성 질환	12	7	19	1.4
피부 질환	7	7	14	1.0
결체조직 질환	3	9	12	0.9
이 질환	6	4	10	0.7
혈액 질환	0	6	6	0.4
생식기계 질환	0	5	5	0.4
비뇨기계 질환	0	4	4	0.3
내분비 질환	0	2	2	0.1
안 질환	0	2	2	0.1
기타	10	19	29	2.1
Total	688	715	1403	100.0

건, 10.7%), 신경계 질환(70건, 5.0%) 순이었다. 종양 질환은 20건으로 1.4%, 감염성 질환은 19건으로 1.4%, 피부 질환은 14건으로 1.0%, 결체조직 질환은 12건으로 0.9%, 이 질환은 10건으로 0.7%, 혈액 질환은 6건으로 0.4%, 생식기계 질환은 5건으로 0.4%, 비뇨기계 질환은 4건으로 0.3%, 내분비계 질환과 안질환은 각각 2건으로 0.1%를 차지하였다(Table 6).

6. 계통적 분류의 연도별 변화 추이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에서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계 질환, 신경계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은 환자수가 많지 않아 연도별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어려운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29.7%, 27.5%, 23.3%, 29.8%, 41.7%, 41.2%, 40.4%로 2007년까지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양상

으로 나타났으며 말초신경-근육 질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20.3%, 20.9%, 23.8%, 17.5%, 16.7%, 14.5%, 11.0%로 2007년까지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은 2006년에 각각 33명(18.1%), 27명(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후 2009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였다. 정신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은 연도별 증감이 심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Table 7).

7. 연령별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 및 질환별 평균 연령

1) 연령별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

연령별로는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 신경계 질환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감염성 질환, 생식기계 질환, 이 질환, 종양 질환, 혈액 질환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개체수가 많지 않아 유의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소화기계 질환에서는 유아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Table 7. Distribu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Year of the Top 6 Systemic Divisions

	Year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근골격계 질환	38 (29.7%)	50 (27.5%)	45 (23.3%)	68 (29.8%)	105 (41.7%)	128 (41.2%)	44 (40.4%)	478 (34.1%)
말초신경 근육질환	26 (20.3%)	38 (20.9%)	46 (23.8%)	40 (17.5%)	42 (16.7%)	45 (14.5%)	12 (11.0%)	249 (17.7%)
호흡기계 질환	11 (8.6%)	33 (18.1%)	32 (16.6%)	30 (13.2%)	21 (8.3%)	32 (10.3%)	12 (11.0%)	171 (12.2%)
소화기계 질환	5 (3.9%)	27 (14.8%)	23 (11.9%)	27 (11.8%)	25 (9.9%)	37 (11.9%)	18 (16.5%)	162 (11.5%)
정신계 질환	20 (15.6%)	15 (8.2%)	22 (11.4%)	32 (14.0%)	21 (8.3%)	32 (10.3%)	8 (7.3%)	150 (10.7%)
신경계 질환	10 (7.8%)	8 (4.4%)	8 (4.1%)	9 (3.9%)	14 (5.6%)	17 (5.5%)	4 (3.7%)	70 (5.0%)
Total	128	182	193	228	252	311	109	1403

() 괄호안의 숫자 : 연도별 분포의 %

Table 8. The Number of Inpatients according to Systemic Division and Age Group

Systemic Division	Stage						Total	Percent (%)
	Neonatal period	Infancy	Preschool period	Prepuberal period	Puberty (early)	Puberty (late)		
근골격계 질환	0	0	43	106	116	213	478	34.1
말초신경-근육질환	0	0	11	38	100	100	249	17.7
호흡기계 질환	0	11	91	35	23	11	171	12.2
소화기계 질환	0	6	28	22	49	57	162	11.5
정신계 질환	1	20	69	16	8	36	150	10.7
신경계 질환	0	2	11	17	17	23	70	5.0
종양 질환	0	0	3	3	4	10	20	1.4
감염성 질환	0	0	1	2	7	9	19	1.4
피부 질환	0	0	3	4	3	4	14	1.0
결체조직 질환	0	0	1	9	2	0	12	0.9
이 질환	0	0	0	1	2	7	10	0.7
혈액 질환	0	0	0	0	2	4	6	0.4
생식기계 질환	0	0	0	0	0	5	5	0.4
비뇨기계 질환	0	0	1	2	0	1	4	0.3
내분비 질환	0	0	0	0	1	1	2	0.1
안 질환	0	0	0	0	1	1	2	0.1
기타	0	1	3	4	9	12	29	2.1
Total	1	40	265	259	344	494	1403	100
Percent(%)	0.1	2.9	18.9	18.5	24.5	35.2	100	

분포를 보이다 학동기에 감소하였으며, 다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호흡기계 질환 환자의 경우 유아기때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체조직 질환은 학동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정신계 질환은 유아기와 후기 사춘기에서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냈다(Table 8, Figure 4).

2) 질환별 평균 연령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의 평균 연령은 11.5(±6.0)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식기계 질환이 17.8(±1.3)세

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 혈액 질환이 16.3(±2.9)세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내분비 질환이 16.0(±4.2)세, 안 질환이 16.0(±4.2)세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질환의 평균 연령은 15.5(±3.7)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성 질환은 14.3(±4.5)세, 종양 질환은 13.9(±5.3)세, 말초신경-근육 질환은 13.8(±4.1)세, 근골격계 질환은 13.3(±5.1)세, 소화기계 질환은 11.8(±6.0)세, 신경계 질환은 11.4(±5.8)세, 피부 질환은 11.1(±5.9)세, 비뇨기계 질환은 9.3(±5.9)세, 결체조직 질환은 8.1(±3.2)세로 나타났다. 정신계 질환의 평균연령은 6.9(±6.8)세였으며, 호흡기계 질환은 5.9(±5.1)세로 평

Table 9. Comparison with Average Age of Systemic Division

Systemic Division	Age		
	N	Mean	SD
생식기계 질환	5	17.8	1.3
혈액 질환	6	16.3	2.9
내분비 질환	2	16.0	4.2
안 질환	2	16.0	4.2
이 질환	10	15.5	3.7
감염성 질환	19	14.3	4.5
종양 질환	20	13.9	5.3
말초신경-근육 질환	249	13.8	4.1
근골격계 질환	478	13.3	5.1
소화기계 질환	162	11.8	6.0
신경계 질환	70	11.4	5.8
피부 질환	14	11.1	5.9
비뇨기계 질환	4	9.3	5.9
결체조직 질환	12	8.1	3.2
정신계 질환	150	6.9	6.8
호흡기계 질환	171	5.9	5.1
기타	29	13.1	5.3
Total	1403	11.5	6.0

Table 10. Comparison with Days of Hospital Treatment of Systemic Division

Systemic Division	Days of Hospital Treatment		
	N	Mean	SD
종양 질환	20	33.9	40.6
안 질환	2	18.5	4.9
말초신경-근육 질환	249	14.9	9.7
신경계 질환	70	12.4	13.8
감염성 질환	19	12.1	11.0
내분비 질환	2	11.0	2.8
결체조직 질환	12	10.3	4.7
이 질환	10	10.2	8.6
근골격계 질환	478	10.0	8.8
생식기계 질환	5	9.0	6.4
혈액 질환	6	8.2	7.1
소화기계 질환	162	6.7	7.1
정신계 질환	150	6.6	4.6
피부 질환	14	6.1	4.0
호흡기계 질환	171	6.0	4.6
비뇨기계 질환	4	5.0	2.9
기타	29	9.1	9.1
Total	1403	10.1	10.4

균 연령이 가장 낮았다(Table 9).

8. 계통별 평균 입원치료기간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치료 기간은 종양 질환이 33.9(±40.6)일로 가장 길었다. 안 질환이 18.5(±4.9)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말초신경-근육 질환 14.9(±9.7)일, 신경계 질환 12.4(±13.8)일, 감염성 질환 12.1(±11.0)일이 그 뒤를 이었다.

소화기계 질환, 정신계 질환, 피부 질환, 호흡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은 각각 6.7(±7.1)일, 6.6(±4.6)일, 6.1(±4.0)일, 6.0(±4.6)일, 5.0(±2.9)일로 입원 치료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질환군에 속하였다(Table 10).

9. 계통적 분류에 따른 다빈도 질환

1)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 총 19건 중 Ramsay hunt syndrome이 13건(68.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상포진 2건(10.5%), 이하선염 2건(10.5%) 순이었다.

그 외 결핵 1건(5.3%), 돌발진 1건(5.3%)이 있었다.

2) 결체조직 질환

결체조직 질환 총 12건 중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10건(83.3%)이었으며, 류마티스 질환이 2건(16.7%) 있었다.

3)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총 478건 중 동통, 염좌, 타박이 37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팽윤이 55건(11.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외 골절 24건(5.0%), 사경 6건(1.3%), 척추측만증 5건(1.0%), 척추분리증 4건(0.8%), 고관절염/대퇴골두 질환 4건(0.8%)이 있었으며, 기타 질환으로 아킬레스건염, 요부척추증, 요골신경병증, 십자인대손상, 측두하관절낭염이 각각 1건씩 있었다(Figure 5).

4) 내분비 질환

내분비 질환에서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1건, 갑상선염 1건이 있었다.

5) 말초신경-근육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 총 249건 중 특발성 안면신경마비가 238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자율신경장애 6건(2.4%), 근육퇴행위축 4건(1.6%), Guillain-Barre syndrome 1건(0.4%)이 있었다(Figure 6).

6) 비뇨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에서는 신우신염 2건, 방광염 1건, 요로계 감염 1건이 있었다.

7) 생식기계 질환

생식기계 질환은 총 5건으로 모두 월경곤란증이였다.

8) 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총 162건 중 위염, 장염이 77건(47.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위장관 증상 27건(16.7%), 소화장애 17건(10.5%), 식중독 13건(8.0%), 과민성 장증후군 5건(3.1%), 장폐색 5건(3.1%)순으로 나타나 위장관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역류성 식도염 4건(2.5%), 간염 3건(1.9%), 장간막 질환 2건(1.2%), 기능성 설사 2건(1.2%), 위궤양 2건(1.2%), 주기성 구토 증후군 2건(1.2%), 췌장염 2건(1.2%), 신경성 위장염 1건(0.6%)이 있었다(Figure 7).

9) 신경계 질환

신경계 질환 총 70건 중 두통, 현훈이 21건(3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간질, 경련 11건(15.7%), 뇌출혈 10건(14.3%) 순이었다. 그 외 뇌진탕, 뇌진탕후 증후군이 7건(10.0%), 열성경련이 4건(5.7%), 간대성 근경련이 3건(4.3%), 저산소성 뇌손상이 3건(4.3%), 뇌경색이 2건(2.9%), 실신이 2건(2.9%), 진전이 2건(2.9%), Sturge-Weber syndrome이 2건(2.9%) 있었다. 기타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후유증, 뇌수막염, 출혈성 뇌좌상이 각각 1건씩 있었다(Figure 8).

10) 안 질환

안 질환에서는 안구건조증 1건, 안구운동장애 1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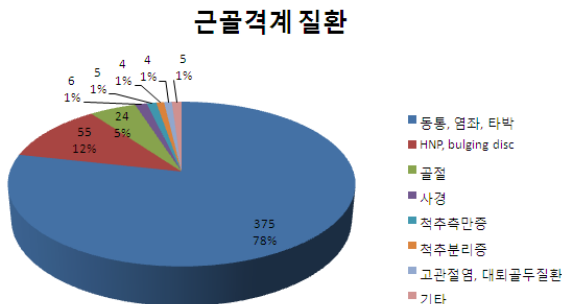


Figure 5. Distribution of inpatients in musculoskelet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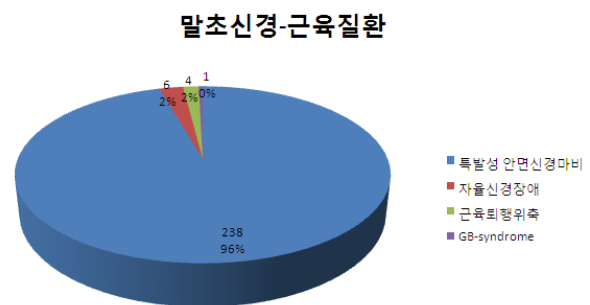


Figure 6. Distribution of inpatients in neuromuscular system

소화기계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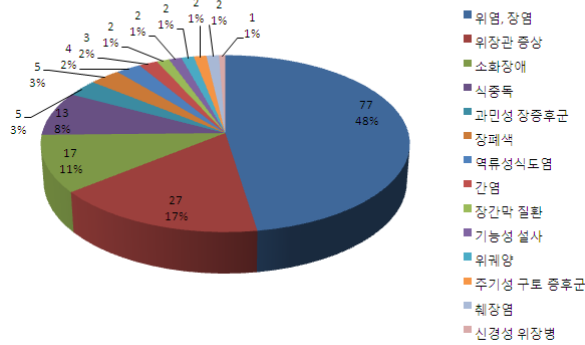


Figure 7. Distribution of inpatients in digestive system

신경계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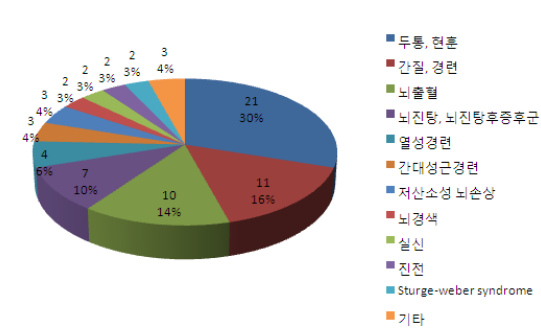


Figure 8. Distribution of inpatients in nervous system

정신계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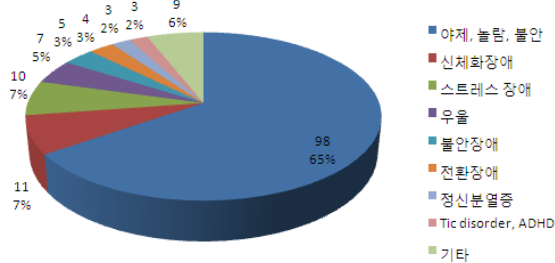


Figure 9. Distribution of inpatients in psychological system

호흡기계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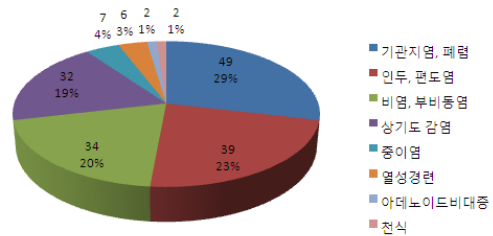


Figure 10. Distribution of inpatients in respiratory system

11) 이 질환

이 질환에서는 매니에르 증후군이 4건(4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돌발성 난청 2건(20.0%), 전정신경장애 2건(20.0%), BPPV 2건(20.0%)이 있었다.

12) 정신계 질환

정신계 질환에서는 외상, 교통사고에 의한 야제, 놀람, 불안이 98건(6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신체화 장애 11건(7.3%), 스트레스 장애 10건(6.7%), 우울 7건(4.7%), 불안장애 5건(3.3%), 전환장애 4건(2.7%), 정신분열증 3건(2.0%), Tic disorder, ADHD 3건(2.0%) 순이었다. 기타로는 충동조절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사회공포증, 단기정신병적 장애, 공황장애 각 1건,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신경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4건이었다(Figure 9).

13) 중양 질환

중양 질환 총 20건 중 별아교세포종, 다형성아교모

세포종 8건(40.0%), 속질모세포종 2건(10.0%), 신경아교종 2건(10.0%), 송과체아세포종 1건(5.0%), 신경교아세포종 1건(5.0%)으로 뇌종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갑상선암 1건(5.0%), 신경모세포종 1건(5.0%),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1건(5.0%), 림프종 1건(5.0%)이 있었다.

14) 피부 질환

피부 질환 총 14건 중 아토피피부염이 11건(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알레르기성 피부염, 전신탈모/여드름, 전염성 연속종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5) 혈액 질환

혈액 질환은 총 6건으로 모두 빈혈이었다.

16)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기관지염, 폐렴이 49건(28.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두, 편도염 39건(22.8%), 비염, 부비동염 34건

Table 11.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Inpatients according to Departments

Department	Gender		Total	Percent(%)
	Male	Female		
침구과	203	190	393	28.0
한방소아과	196	166	362	25.8
한방재활의학과	159	202	361	25.7
한방내과	63	85	148	10.5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9	32	61	4.3
한방신경정신과	17	20	37	2.6
사상체질과	21	13	34	2.4
한방부인과	0	7	7	0.5
Total	688	715	1403	100.0

Table 12. The Number of Inpatients according to Age Groups and Departments

Departments	Stage						Total
	Neonatal period	Infancy	Preschool period	Prepuberal period	Puberty (early)	Puberty (late)	
침구과	0	2	12	41	140	198	393
한방소아과	0	23	158	109	68	4	362
한방재활의학과	1	14	75	80	64	127	361
한방내과	0	0	7	13	44	84	148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0	1	11	15	12	22	61
한방신경정신과	0	0	2	1	9	25	37
사상체질과	0	0	0	0	6	28	34
한방부인과	0	0	0	0	1	6	7
Total	1	40	265	259	344	494	1403

(19.9%), 상기도 감염 32건(18.7%) 순이었다. 그 외 중이염 7건(4.1%), 열성경련 6건(6.5%), 아데노이드비대증 2건(1.2%), 천식 2건(1.2%)이 있었다(Figure 10).

17) 기타 질환

기타 질환으로는 비만이 11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일산화탄소 중독 2건(6.9%), 동상 1건(3.4%), 약물과다복용 1건(3.4%), 약물부작용 1건(3.4%), 일사병 1건(3.4%), 저칼륨혈증 1건(3.4%)이 있었으며, 달리 분류할 수 없는 증상이 11건(37.9%)이 있었다.

10. 진료과별 입원환자 분포

진료과별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403건 중 침구과에서 총 393건(28.0%) 입원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소아과 362건(25.8%), 한방재활의학과 361건(25.7%) 순이었다. 한방내과에서는 148건(10.5%),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61건(4.3%),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37건(2.6%), 사상체질과에서는 총 34건(2.4%), 한방부인과

에서는 7건(0.5%)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11. 연령별 진료과 분포 및 진료과별 평균 연령

연령별로는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과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학동기까지 연령에 따라 입원환자가 증가하다 초기 사춘기에 감소하였으나 후기 사춘기에 다시 증가하였다. 한방소아과는 유아기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12).

진료과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한방부인과와 사상체질과가 각각 17.0(±2.5)세, 17.0(±1.6)세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신경정신과 15.4(±4.1)세, 한방내과 15.0(±3.8)세, 침구과 14.7(±4.0)세,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1.6(±6.1)세, 한방재활의학과 11.1(±6.3)세 순이었다. 한방소아과 입원환자의 평균연령은 6.1(±4.3)세 진료과중 유일하게 평균연령이 1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Comparison with Average Age of Departments

Departments	Age		
	N	Mean	SD
한방부인과	7	17.0	2.5
사상체질과	34	17.0	1.6
한방신경정신과	37	15.4	4.1
한방내과	148	15.0	3.8
침구과	393	14.7	4.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1	11.6	6.1
한방재활의학과	361	11.1	6.3
한방소아과	362	6.1	4.3
Total	1403	11.5	6.0

Table 14. Comparison with Days of Hospital Treatment of Departments

Departments	Days of Hospital Treatment		
	N	Mean	SD
침구과	393	13.7	9.9
한방내과	148	10.7	13.6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1	10.3	9.6
한방재활의학과	361	10.1	12.3
한방신경정신과	37	7.3	5.8
한방소아과	362	6.6	5.6
사상체질과	34	5.9	6.9
한방부인과	7	5.0	1.4
Total	1403	10.1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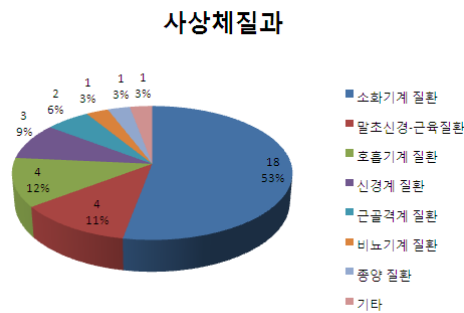


Figure 11.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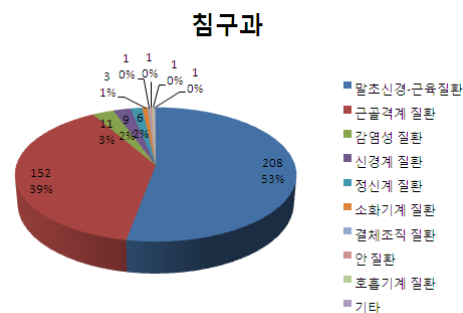


Figure 12.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Acupuncture & Moxibustion Department

12. 진료과별 평균 입원치료기간

진료과별 평균 입원치료기간은 침구과가 13.7(±9.9)일로 가장 길게 입원하였으며, 그 다음은 한방내과 10.7(±13.6)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3(±9.6)일, 한방재활의학과 10.1(±12.3)일 순이었다.

한방신경정신과는 7.3(±5.8)일, 사상체질과는 5.9(±6.9)일, 한방부인과는 5.0(±1.4)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소아과는 6.6(±5.6)일 입원하여 비교적 적은 입원치료기간을 보였다(Table 14).

13. 진료과별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

진료과별 주소증의 계통적 분류를 시행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사상체질과

사상체질과에서는 소화기계 질환이 18건(52.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말초신경-근육 질환 4건(11.8%), 호흡기계 질환 4건(11.8%), 신경계 질환 3건(8.8%), 근골격계 질환 2건(5.9%), 비뇨기계 질환 1건(2.9%), 중양 질환 1건(2.9%), 기타 1건(2.9%)이 있었다(Figure 11).

2) 침구과

침구과에서는 말초신경-근육 질환 208건(52.9%)이

한방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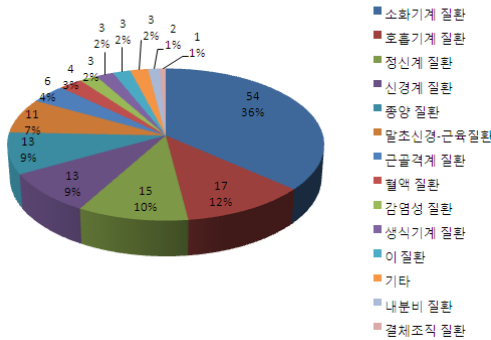


Figure 13.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Oriental Internal Medicine

한방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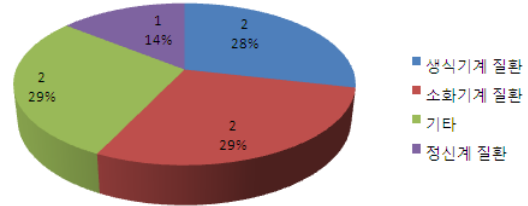


Figure 14.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한방소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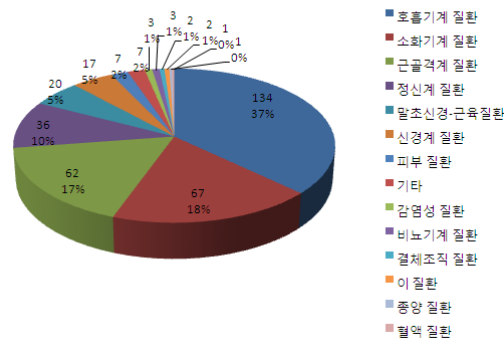


Figure 15.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Oriental Pediatrics

한방신경정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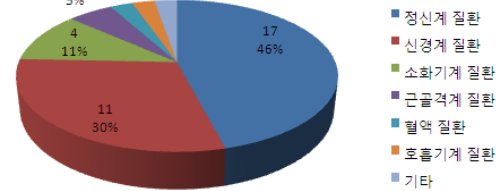


Figure 16.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Oriental Neuropsychiatry

과반수 이상 차지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152건 (38.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감염성 질환 11건 (2.8%), 신경계 질환 9건(2.3%), 정신계 질환 6건(1.5%), 소화기계 질환 3건(0.8%), 결체조직 질환 1건(0.3%), 안 질환 1건(0.3%), 호흡기계 질환 1건(0.3%), 기타 1건 (0.3%)이 있었다(Figure 12).

3) 한방내과

한방내과에서는 소화기계 질환이 54건으로 36.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호흡기계 질환 17건(11.5%), 정신계 질환 15건(10.1%), 신경계 질환 13건(8.8%), 중양 질환 13건(8.8%), 말초신경-근육 질환 11건(7.4%) 순이었다. 그 외 근골격계 질환 6건(4.1%), 혈액 질환 4건(2.7%), 감염성 질환 3건(2.0%), 생식기계 질환 3건(2.0%), 이 질환 3건(2.0%), 기타 3건(2.0%), 내분비 질환 2건(1.4%), 결체조직 질환 1건(0.7%)이 있었다(Figure 13).

4) 한방부인과

한방부인과에서는 생식기계 질환 2건(28.6%), 소화

기계 질환 2건(28.6%), 정신계 질환 1건(14.3%), 기타 2건(28.6%)이 있었다(Figure 14).

5) 한방소아과

한방소아과에서는 호흡기계 질환이 134건(37.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계 질환 67건(18.5%), 근골격계 질환 62건(17.1%) 순이었다. 그 외에 정신계 질환 36건(9.9%), 말초신경-근육 질환 20건(5.5%), 신경계 질환 17건(4.7%), 피부 질환 7건(1.9%), 기타 7건(1.9%), 감염성 질환 3건(0.8%), 비뇨기계 질환 3건(0.8%), 결체조직 질환 2건(0.6%), 이 질환 2건(0.6%), 중양 질환 1건(0.3%), 혈액 질환 1건 (0.3%)이 있었다(Figure 15).

6)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정신계 질환 17건(45.9%), 신경계 질환 11건(29.7%)으로 신경, 정신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소화기계 질환 4건(10.8%), 근골격계 질환 2건(5.4%), 혈액 질환 1건(2.7%), 호흡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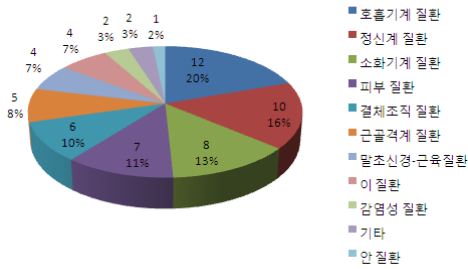


Figure 17.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한방재활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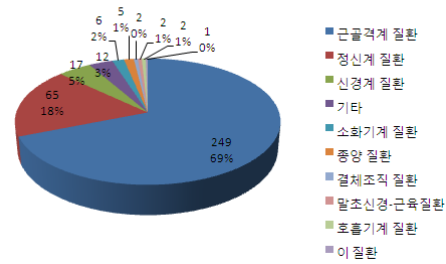


Figure 18. Distribution of systemic division in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Table 15. Distribution of Traffic Accident Patients in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T.A.*		non-T.A.		Total	
Systemic Division	근골격계 질환	212	58.6 %	37	10.2 %	249	68.8 %
	정신계 질환	65	18.0 %	0	0.0 %	65	18.0 %
	신경계 질환	9	2.5 %	8	2.2 %	17	4.7 %
	소화기계 질환	3	0.8 %	3	0.8 %	6	1.7 %
	종양 질환	0	0.0 %	5	1.4 %	5	1.4 %
	말초신경-근육질환	0	0.0 %	3	0.8 %	3	0.8 %
	결체조직 질환	0	0.0 %	2	0.6 %	2	0.6 %
	호흡기계 질환	0	0.0 %	2	0.6 %	2	0.6 %
	이 질환	0	0.0 %	1	0.3 %	1	0.3 %
	기타	1	0.3 %	11	3.0 %	12	3.3 %
전체	Total	290	80.1 %	72	19.9 %	362	100.0%

* T.A. : Traffic Accident

계 질환 1건(2.7%), 기타 1건(2.7%)이 있었다(Figure 16).

7)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호흡기계 질환이 12건(19.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정신계 질환 10건(16.4%), 소화기계 질환 8건(13.1%), 피부 질환 7건(11.5%)이 따랐다. 그 외 결체조직 질환 6건(9.8%), 근골격계 질환 5건(8.2%), 말초신경-근육 질환 4건(6.6%), 이 질환 4건(6.6%), 감염성 질환 2건(3.3%), 안 질환 1건(1.6%), 기타 2건(3.3%)이 있었다(Figure 17).

8)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249건(6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212건(58.6%)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정신계 질환이 65건(18.0%)으로 모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나타난 정신계 질환이었으며, 그 외 신경계 질환 17건(4.7%), 소화기계 질환 6건(1.7%), 종양 질환 5건(1.4%), 결체조직 질환 2건(0.6%), 말초신경-근육 질환 2건(0.6%), 호흡기계 질환 2건(0.6%), 이 질환 1건(0.3%), 기타 12건(3.3%)이 있었다(Table 15, Figure 18).

환 17건(4.7%), 소화기계 질환 6건(1.7%), 종양 질환 5건(1.4%), 결체조직 질환 2건(0.6%), 말초신경-근육 질환 2건(0.6%), 호흡기계 질환 2건(0.6%), 이 질환 1건(0.3%), 기타 12건(3.3%)이 있었다(Table 15, Figure 18).

14. 한방소아과 입원환자의 성별, 연령별, 연도별 분포

1) 성별, 연령별 분포

한방소아과 입원환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입원 총 362명 중 남아가 196명, 여아가 166명으로 남녀비는 1.18:1이었으며(Table 11), 연령별로는 영아기에 23명(6.4%), 유아기에 158명(43.6%), 학동기 109명(30.1%), 초기사춘기 68명(18.8%), 후기사춘기 4명(1.1%)으로 유아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12).

2) 연도별 분포

한방소아과 입원환자는 2005년 21건(5.8%)에서 2006년 53건(14.6%), 2007년 54건(14.9%), 2008년 56건

Table 16. Distribution of Oriental Pediatrics Inpatients according to Year

	Year	Gender		Total	Percent(%)
		Male	Female		
	2005	15	6	21	5.8
	2006	30	23	53	14.6
	2007	28	26	54	14.9
	2008	32	24	56	15.5
	2009	35	38	73	20.2
	2010	35	39	74	20.4
	2011	21	10	31	8.6
Total		196	166	362	100.0

Table 17. Analysis on Discharge Factors of One Day Admitted Patients

유형	퇴원요인	발생건수	
자택 귀가	증상 별무 호전중 환자, 보호자 원하여 퇴원	11건	22건
	호전 중 환자, 보호자 원하여 퇴원	5건	
	환아의 입원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여 퇴원	5건	
	검사결과 별무이상이어서 퇴원	1건	
타병원 전원	적극적인 양방검사 및 치료 위해 타병원 전원	8건	18건
	환자 및 보호자 타병원 진료 원하여 전원	6건	
	연고지 문제로 전원	3건	
	V/S* 불안정으로 타병원 전원	1건	
기타	progress 미비	13건	
Total		53건	

* V/S : vital sign

(15.5%), 2009년 73건(20.2%), 2010년 74건(20.4%), 2011년 5월말까지 31건(8.6%)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Table 16).

15. 입원일수 1일인 환자의 퇴원요인 분석

입원 당일 퇴원한 환자는 병록기록부의 기재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병록기록부에 당일 퇴원 요인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입원 당일 퇴원한 환자 총 52명, 퇴원건수 총 53건 중 자택 귀가한 경우가 총 22건이었으며, 타병원으로 전원한 경우가 18건, 차트 미비한 경우가 13건이었다.

자택 귀가한 경우 증상 별무 호전 중 환자, 보호자 원하여 퇴원한 경우가 11건, 호전 중 환자, 보호자 원하여 퇴원한 경우가 5건, 환아가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여 퇴원한 경우가 5건, 검사결과가 별무이상이어서 퇴원한 경우가 1건이었다.

타병원 전원인 경우 적극적인 양방검사 및 치료 위

해 타병원으로 전원한 경우가 8건, 환자 및 보호자가 타병원 전원을 원한 경우가 6건, 연고지 문제로 전원한 경우가 3건, 생체징후 불안정으로 전원한 경우가 1건이었다(Table 17).

IV. 考 察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0년도 연령별 한방기관 요양급여 실적에 따르면 한방기관에 입원한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의 입원 청구건수는 4,644건, 요양급여비용은 2,103,248천원으로 외래 청구건수 5,859,119건, 요양급여비용 98,476,845천원에 훨씬 못 미치며¹³⁾, 이는 2010년도 19세 미만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실적이 외래 2,877,037,811천원, 입원 1,204,387,406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¹⁴⁾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아직 한방영역에서 소아, 청소년 진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외래에 치중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적 접근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아기에 발생하는 질병은 성장과 발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성인과는 다른 병태생리를 갖게 되며,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동기 및 청소년기 각각의 시기에 호발하는 질병의 양상과 특성이 다르다¹⁵⁾. 또한 공기오염,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아파트와 같은 주거 환경의 변화 등 과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변화는 인체내 질병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이와 함께 소아과 영역의 질병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⁶⁾.

이러한 급변하는 질환의 변화에 대응하고 한방소아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료영역을 넓히고 치료방법을 다각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원 치료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입원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방병원 소아 입원환자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발표된 바 있으나¹¹⁾ 그 대상자가 적고 한방소아과에 입원한 환자로 국한되어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20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 전체의 특성을 대표하기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대전, 충청소재 한방병원 4곳의 만 20세 이하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 1284명, 총 입원건수 1403건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연도별, 월별분포 및 임상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방소아과와 관련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입원 당일 퇴원한 환자 52명은 병록기록부 기재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다만 52명의 퇴원 요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퇴원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입원횟수가 여러 차례인 환자는 각각 개별 입원건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의 성비는 0.96:1의 비율로 여아가 많았다. 이는 한방 소아과 외래 환자의 성비를 분석한 이⁷⁾, 송⁸⁾, 최⁹⁾, 최¹⁰⁾ 등의 연구와 양방 소아과 입원 환자의 성비를 조사한 정¹⁵⁾, 김¹⁷⁾과는 다른 결과이며, 한방소아과 입원 환자를 분석한 천¹¹⁾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이 본 연구 및 천¹¹⁾의 연구에서는 각각 19세, 2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정¹⁵⁾, 김¹⁷⁾은 15세 이하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오차로 보여진다. 이는 연령에 따른 남녀비가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큰 반면, 사춘기에서는 여아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 및 유아기에 가장 많은 입원 분포를 보이는 한방 소아과 입원환자의 성비가 1.18:1로 남아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입원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양방 소아과 입원환자의 연령별 분포가 1세 미만의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김¹⁷⁾의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방병원에서 소아병동이 따로 갖추어지지 않아 영유아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체혈 및 보호자 교육을 담당하는 영유아 전문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128명(9.1%)에서 2006년에는 182명(13.0%), 2007년에는 193명(13.8%), 2008년에는 228명(16.3%), 2009년에는 252명(18.0%), 2010년에는 311명(22.2%), 2011년 5월말까지 109명(7.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한방 입원 치료를 선호하는 소아, 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12~1월, 7~8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학기 중에는 입원 치료가 어려워 방학 때 집중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아,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사춘기, 후기사춘기에 12~1월, 7~8월에 높은 입원 분포를 보인 결과와 학동기, 초기사춘기에 3월에 낮은 입원 분포를 보인 결과로써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연령별 평균 입원 치료기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 치료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짧은 입원치료기간이 필요한 호흡기계 질환이 감소하고, 긴 입원 치료기간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 신경계 질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병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계통별로 주소증을 분류하여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478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말초신경-근육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계 질환 순이었다. 호흡기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10,11)}

와는 다른데, 이는 본 연구가 한방소아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한방치료에 대한 선호도에서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¹⁸⁾가 소아, 청소년 영역에서도 적용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중양 질환, 감염성 질환, 피부 질환, 결체조직 질환, 이 질환, 혈액 질환, 생식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안 질환, 내분비계 질환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질환 자체의 적은 유병률, 양방 치료 선호, 외래 치료로 관리가 가능함 등의 이유와 연관시켜 볼 수 있겠다.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의 평균 연령은 11.5(±6.0)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식기계 질환이 17.8(±1.3)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는데 생식기계 질환 환자들 모두 월경곤란증 때문에 입원한 것으로 초경이 시작된 사춘기 이후 입원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신계 질환은 6.9(±6.8)세로 나타나 평균연령이 낮은 편에 속하였는데, 이는 정신계 질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소증이 외상, 교통사고에 의한 야제, 놀람, 불안(98건, 65.3%)으로, 유·소아는 교통사고 등의 외부 자극에 대한 증상이 외상, 통증 보다는 식욕이나 수면, 심리상태의 변화 위주로 나타나며, 표현력이 약한 어린 연령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 치료기간은 10.1(±10.4)일이었으며, 중양 질환의 평균 입원치료 기간은 33.9(±40.6)일로 가장 길었는데, 중양 질환의 특성상 종양의 성장억제 및 전이, 재발의 방지, 질환의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호흡기계 질환은 평균 연령이 5.9(±5.1)세로 가장 낮았고, 입원 기간도 6.0(±4.6)일로 비교적 짧은 질환군에 속하였다.

계통적 분류에 따른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 총 479건 중 동통, 염좌, 타박이 375건으로 78.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단일 주소증 중 26.7%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팽윤이 55건으로, 단일 주소증 중 3.9%를 차지하여 5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말초신경-근육 질환 총 249건 중 특발성 안면신경마비가 238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하였으며, 단일 주소증 중 17.0%를 차지하여 2번째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정신계 질환에서는 외상 및 교통사고로

인한 야제, 놀람, 불안이 9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단일 주소증으로는 3번째에 해당하였다. 소화기계 질환 총 162건 중 위염, 장염이 77건으로 7.5%를 차지하였으며, 단일 주소증으로는 4번째에 해당하였고,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기관지염, 폐렴이 49건으로 단일 주소증으로는 5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소아, 청소년의 한방 입원치료 영역에서 단일 질환으로는 동통/염좌/타박,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야제/놀람/불안, 위염/장염, 기관지염/폐렴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과별 입원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침구과에서 총 393건 입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입원 치료의 선호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방 소아과에서는 총 362건 입원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방재활의학과에서 361건 입원하여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침구과, 한방소아과,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총 1136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한방소아과만 유아기에 가장 많은 입원 환자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다른 생리, 병리적 특성을 보이며, 치료에 제약이 많고 다루기 어려운 유·소아의 특성 때문에 유·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방소아과에서 주 진료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진료과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소아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평균 연령이 10세 이상이었으나 소아과만 6.13(±4.32)세로 나타나 소아, 청소년 중에서도 낮은 연령대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진료과별 평균 입원치료기간은 침구과가 13.69(±9.88)일로 가장 길게 입원하였으며 한방소아과는 6.58(±5.57)일로 비교적 적은 입원치료기간을 보였다.

진료과별 주소증의 분포에서는 사상체질과에서는 소화기계 질환이, 침구과에서는 말초신경-근육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한방내과에서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정신계, 신경계, 중양 질환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한방소아과에서는 호흡기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정신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이, 한방안비인후피부과에서는 호흡기계 질환과 정신계 질환이, 한방재활의학과에서

는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계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과와 질환군이 유사하게 배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입원 당일 퇴원한 환자의 퇴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택 귀가의 경우, 환자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여 입원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서 퇴원한 경우가 5건으로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침, 뜸, 한약 등의 치료법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거부감을 느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아가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타병원 전원의 경우 적극적인 양방검사 및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한 경우가 8건으로 한방병원의 특성상 양방적인 검사 및 진단,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불안함을 느끼는 보호자들이 타병원 전원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아직 소아, 청소년 영역에서 한방병원 입원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 등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질환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양방의 주요 입원 치료 질환인 신생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감염성 질환¹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주 입원 치료 대상도 사춘기, 그 중에서도 특히 후기 사춘기에 집중되어 있어 성인에 준하여 관리 가능한 연령대가 주로 입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직 한방 입원 치료 영역에서는 소아 병동, 소아 전문 간호 인력 등 영·유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입원 치료의 활성화, 질환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6년 5개월이라는 다소 긴 기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나 연령별, 질환별로 모집단의 수가 충분치 못하여, 주요 질환을 제외하고는 연령별 뚜렷한 특징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수년간 병록기록부의 기록자가 여러 명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일관성이 부족했을 우려도 있다.

미국소아과학회의 보고¹⁹⁾에 따르면 환자와 가족들의 인구학적/임상적 특성의 변화, 건강 정보 제공 기술의 급성장, 의료 발전의 지속, 건강관리-출산 시스템의 변화, 소비자 중심의 건강 관리의 성장, 소아 노동인구의 역학관계, 재난, 그리고 세계화가 소아과의 미래에 어떠한 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의료현실 속에서 한방소아과학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종류의 질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結 論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대전, 충청지역 소재 4곳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19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 1284명, 입원건수 1403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입원 환자의 성비는 총 1403명 중 남아가 688명, 여아가 715명으로 0.96:1의 비율로 여아가 많았다. 입원 환자의 평균연령은 11.5(±6.0)세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2. 소아, 청소년 입원환자는 2005년에는 128명(9.1%), 2006년에는 182명(13.0%), 2007년에는 193명(13.8%), 2008년에는 228명(16.3%), 2009년에는 252명(18.0%), 2010년에는 311명(22.2%), 2011년 5월말까지 109명(7.8%)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다. 월별 분포에서는 1월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3월에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 연령별 평균 입원기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입원기간도 긴 양상이 나타났다.
4. 주소증을 계통적으로 분류해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말초신경-근육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계 질환 순이었다.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근육 질환, 신경계 질환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호흡기계 질환은 유아기에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5. 진료과별로 침구과에서 총 393건(28.0%) 입원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한방소아과 362건(25.8%), 한방재활의학과 361건(25.7%) 순이었고, 침구과, 한방소아과, 한방재활의학과와 총 입원환자수가 전체의 79.5%를 차지하였다.
6. 한방소아과에는 총 362명이 입원하였으며, 그 중 남아가 196명, 여아가 166명으로 1.18:1의 비율로 남아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영아기에 23명(6.4%), 유아기 158명(43.6%), 학동기 109명(30.1%), 초기사춘기 68명(18.8%), 후기사춘기 4명(1.1%)으로 유아

기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방소아과 입원 환자수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VI. 參考文獻

1. 이규식, 조경숙.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999;9(4):120-39.
2. 장은수, 유현주, 김효정, 이시우. 전통의료서비스 시장의 현황과약을 위한 조사연구:전국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13(3):143-9.
3. 안효섭. 홍창의 소아과학 제9판(보정판).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7:6-19.
4. 이진용, 정재환, 김덕곤, 정규만.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6;10(1):201-19.
5. 최윤정, 김장현.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정보학회지. 1996;2(1):99-105.
6. 오하석, 김장현. 소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8;12(1):63-76.
7. 이승연. 소아 외래 환자 주소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1):203-16.
8. 송인선, 신지나, 신원규. 소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관한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2;16(2):69-81.
9. 최은영, 장규태, 김장현. 모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01년~'04년).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5;19(2):197-213.
10. 최민형, 김덕곤, 이진용. 경희의료원 한방소아·청소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2009년 3월~2010년 12월).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0;24(2):121-37.
11. 천진홍, 유현영, 김기봉, 민상연, 김장현. 한방병원 소아과 입원 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9;23(3):109-19.
12. 김기봉,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민상연, 박은정, 백정환, 유선애, 이승연, 이진용, 이해자, 장규태, 채중원, 한윤정, 한재경.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도서출판 의성당. 2010:7-24,36.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령별 성별 한방기관 요양급 여실적. 2010. Available form: URL: <http://stat.kosis.kr/nsieu/index.jsp?hOrg=354>.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령별 성별 의료기관 요양급 여실적. 2010. Available form: URL:<http://stat.kosis.kr/nsieu/index.jsp?hOrg=354>.
15. 정용현, 서우식, 유재홍, 변상현. 소아과 입원 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충남의대잡지. 1995;22(3):277-94.
16. 한재경, 김윤희.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실태 분석.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2):209-20.
17. 김화자, 정용민, 박상규, 박호진, 신미자, 강석철. 소아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계적 관찰(1971~1990). 소아과. 1993;36(5):615-25.
18. 유왕근.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요구도. 대한예방의학회지. 2003;7(2):45-64.
19. Amy J. Starmer, John C. Duby, Kenneth M. Slaw, Anne Edwards, Laurel K. Seslie and Members of the Vision of Pediatrics 2020 Task Force. Pediatrics in the year 2020 and Beyond:preparing for plausible futures. 2010. Available form: URL:www.pediatrics.org/cgi/content/full/126/5/971.